

평창

광천선굴 관광객 3년 연속 증가...평창 새 관광명소 자리매김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8-13 00:05:00 수정 : 2026-08-13 00:06:09 지면 : 2026-08-13 (15면)

올해 이용객,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



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입구

【평창】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이용객이 3년 연속 증가하며 평창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8개월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를 한 이용객은 4만5,4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466명보다 7,032명(18.3%) 증가했다.

광천선굴 이용객은 2024년 같은 기간 3만1,314명에서 2025년 3만8,466명, 올해 4만5,498명으로 3년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이용객 수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해 1만4,184명(45.3%)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매년 약 7,000명씩 이용객이 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2022년 10월27일 개장한 총길이 850m의 석회동굴로, 종유석과 석주, 석순 등 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 등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동굴 내부에 데크로 조성된 경사로와 평탄한 관람 동선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시설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현수막, 홍보방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관광시설 및 숙박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광천선굴을 찾는 관광객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천선굴의 아름다운 동굴 경관과 무장애 관람환경이 관광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관광시설 및 숙박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내부 모습.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8-13 00:05:00 수정 : 2026-08-13 00:06:09 지면 : 2026-08-13 (15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